

# 한미일 워싱턴 3자회담 7월 가능성...“3국간 새로운 공조”

### 대통령실 “올여름 개최 방안 거론” 바이든 히로시마 회동서 초청 3국 정상 간 서둘러외교 전망도 나와

한국과 미국, 일본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제안한 ‘워싱턴 3자 회담’을 이르면 오는 7월 개최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언론과의 통화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올여름 워싱턴에서 개최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밝혔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아직 구체적인 언급은 못 들어봤다”면서도 “바로 여름이 될 수도 있고 또는 9월 유엔총회 가기 직전, 워싱턴에서 만나서 3국 정상이 따로 별도 시간을 충분히 갖는 형태도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린 일본 히로시마에서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만나 약 2시간 약식 회담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추가적인 한미일 정상회담을 위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를 워싱턴으로 초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구체적인 시기는 3국의 국내 정치 일정과 정상의 교섭 등을 고려해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각국 정치 일정이 달라서 맞출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점을 선택해 세 정상이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3자 회담이 성사되면, 처음으로 다자회의를 배경으로 하는 것이 아닌 3국 간 별도 회담을 갖는 것이 된다.

그 자체만으로도 한미일 3국 간 협력 수준이 한층 높아졌음을 보여준다는 의미가 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유엔총회가 아니라 워싱턴으로 한일 정상을 초청한 것은 그만큼 한미일 3국 공조에 대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대통령실은 평가하고 있다.

‘워싱턴 3자회담’에서는 히로시마에서 합의한 ‘3국 간 공조의 새로운 수준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조 방안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새로운 수준의 공조 발전’은 3국 정상간 협력 체제를 정례화된 협의체 수준으로까지 높여갈 것이라는 의지를 표한 것이라는 해석도 일각에서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미일간 전방위적인 협력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잘 발전하면 ‘한미일판 서클 정상외교’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과 전세사기 특별법 심사와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 尹 “EU 자유·인권 공유하는 소중한 동반자” EU 상임의장 “디지털 시대 맞춰 협력 확대”

### 정상회담서 파트너십 강화 논의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유럽연합(EU)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소중한 동반자”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샤를 미셸 EU 상임의장, 우르술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EU는 우리의 3대 교역국이고, 제1의 대(對)한국 투자 파트너”라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11년 만에 이뤄진 EU 지도자 두 분의 동시 방한은 한국과의 파트너십 강화에 대한 EU의 의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두 분께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EU의 연대를 확인하면서 EU의 단합된 지원을 이끌어오고 계신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EU의 협력은 첨단기술, 글로벌 안보, 기후 등 글로벌 어젠다로 계속 확대되고 있다”며 “2010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설정한 이래 실질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미셸 상임의장은 “환대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양자 협력을 디지털 시대에 맞춰 더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EU 관계에 대해 “기본 협정, 자유무역협정(FTA), 위기관리 활동 참여와 관련된 협정 등

3대 협정이 탄탄한 기반을 마련해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주의적 가치가 소중하고 진솔한 동반자로 우리를 연결해주고 있다”며 “우리가 함께 활동함으로써 목표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대한민국은 저에게 아주 중요한 동반자이자 G7의 중요한 동반자”라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국제 규범 기반의 질서 수호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한국에서 열린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경험을 소개하면서 “모든 분이 한국 정부, 한국 국민과의 긴밀한 협력에 정전을 아끼지 않았다”고 전하기도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尹지지율 39.0%...취임 후 첫 4주 연속 상승

### 리얼미터 조사...2.2%p 올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4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브 의뢰로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2.2%포인트(p) 상승한

39.0%로 집계됐다.

긍정 평가는 미국 국빈 방문, 한미정상회담이 있었던 지난달 말부터 4주 연속 상승세(32.6%→34.5%→34.6%→36.8%→39.0%)를 기록했다. 최근 4주간 지지율은 총 6.4%p가 올랐다.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9%p 낮아진 57.9%로, 2달 만에 50%대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 역시 지난달 말부터 최근 4주 연속 하락세(64.7%→62.6%→62.5%→60.8%→57.9%)

를 기록, 이 기간 총 6.8%p 내렸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외교·안보 분야 이슈가 역으로 국정평가 주요인으로 작용했고, 광주 5·18 기념식 참석과 민주당의 연이은 실책 등이 이어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8.5%, 더불어민주당이 42.4%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은 전주에 비해 지지율이 2.2%p 올랐지만, 민주당은 지지율이 4.6%p 내렸다.

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조사는 무선 97%·유선 3%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2%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 전세사기 최우선변제금 10년 무이자 대출

### 여야 합의 특별법 국회 소위 통과 24일 전체회의 25일 본회의 처리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국토법안소위를 열어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24일 오전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전세 피해 보증금 채권 매입 등 피해 구제 방안을 두고 지난 내차례 소위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여야는 이날 다섯번째 소위에서 합의에 도달했다.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전세 피해 보증금 회수 방안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현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최우선변제 범위를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2억4000만 원까지 1.2~2.1%의 저리 대출을 지원한다.

근저당 설정 시점이나 전세계약 취소 등에 관계 없이 경·공매가 이뤄지는 현재 시점의 최우선 변제금만큼 대출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최우선변제금이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그동안 야당은 최초 임대차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최우선변제금을 소급 적용해줄 것을 요구해 왔지만, 정부는 이를 받지 않는 대신 이 같은 절충안을 제시했다.

특별법은 대상 요건도 완화해 이중계약과 신탁 사기 등에 따른 피해도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강릉전세 피해자, 근린생활시설 전세 사기 피해자도 지원 대상이 된다.

특별법 적용 보증금 기준도 4억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해주는 ‘경·공매 윈스톱 대행 서비스’도 특별법에 포함됐다. 경매 신청·낙찰 시 정부는 법률 전문가 수수료가 70%를 부담한다. 아울러 전세 사기 피해자가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환의무 준수를 전제로 20년간 연체정보 등록·연체금 부과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최장 20년간 전세대출 무이자 분할상환도 허용한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제 제201210-중-116878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바른자세, 꾸준한 운동, 세심한 관리로  
튼튼한 '인생' 튼튼하게 '즐기세요'

척추 무릎 어깨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

첨단우리병원

봄에 떠나는 그로운 섬여행

##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 거문도+백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상기 여행요금은 평일 출발 기준 요금이며, 주말 출발시에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광주-녹동항 셔틀버스는 기상 및 회사 사정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원: 삼도해운, 플래티늄    승선문의: 061-834-3434    예약센터: 메이투어: 062-385-0515    투어나우: 062-575-8019